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전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령장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전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주체112(2023)년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입니다.

김 정 은

주체112(2023)년 7월 27일은 조선인민이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한 때로부터 70돐이 되는 날이다.

조국해방전쟁(1950. 6. 25-1953. 7. 2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 민주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으로 대립된 두 극간의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였다.

적아간에 인구와 령토는 물론 무장장비와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비조차 할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기의 령토와 자주권을 사수해낸것은 조선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의 군사전법과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결사항전에 떨쳐나선 전체 인민의 투쟁정신과 무비의 용감성, 대중적영웅주의의 결실이였다.

인민대중의 강의한 정신력을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을 조국보위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한 즉시적이며 결정적인 반공격전과 정규부대들에 의한 제2전선의 형성, 적극적인 진지방어전과 갱도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한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언제나 전쟁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시였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 싸우는 병사들을 위한 화선휴양소를 내오고 전반적무상치료제도 실시해주시며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굴의 용사로 키우고 영웅적위훈에로 고무추동한 근본원천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불뿜는 적화점을 몸으로 막아 진격로를 연 인민군전사들과 적기의 맹폭격속에서 무기와 탄약을 만들고 식량증산과 전시수송을 보장한 후방인민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은 침략자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절망을 가져다주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인민은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자주적발전환경을 지켜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실행을 저지시키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평화를 수호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탁월한 수령을 모실 때 인민도 위대하고 나라도 강대해진다는 진리, 수령과 인민이 일심단결된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진리를 력사의 갈피에 아로새기였다.

조선인민은 1950년대 전화의 나날에 창조된 조국수호정신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필승의 보검으로,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으로 간직하고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고 있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8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반공격에로 28

승리한 래일을 위하여 64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80

위대한 승리의 7. 27 134

1950년 6월 25일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38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은 《전격전》으로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날인 주체39(1950)년 6월 25일 아침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시고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하여 무력침공자들을 소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이 있고 강력한 인민군대와 공고한 후방이 있으며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가 본토에서 대병력을 끌어오자면 적어도 한달이상 시일이 걸리며 일본에 있는 미군무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자고 해도 일정한 시일이 걸려야 한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적의 대무력이 조선전선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높은 기동력과 련속적인 타격으로 적의 기본집단을 짧은 시일안에 격멸소탕하고 공화국남반부를 완전히 해방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조국해방전쟁 제1계단(1950. 6. 25-9. 15.)]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39(1950)년 6월 2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에게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여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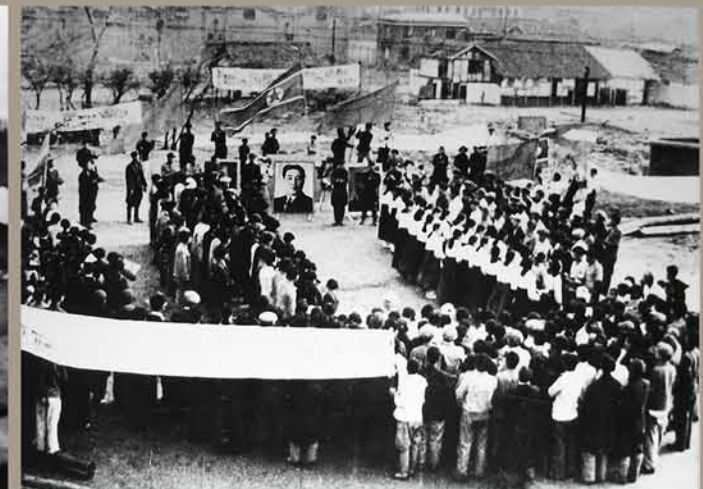
즉시 온 나라에 전시체제가 확립되고 전인민적인 전선탄원운동이 벌어졌으며 인민군대의 작전들이 련속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과정에 인민군대는 서울해방작전, 주문진해전, 대전해방작전, 락동강도하전투 등 수많은 작전들과 전투들을 진행하여 한달반 남짓한 기간에 공화국남반부 전지역의 90% 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였다.

공화국남반부의 해방지역들에서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당 및 근로단체들이 복구되였으며 토지개혁, 로동법령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이 실시되였다.

전체 조선인민에게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방송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년 6월

전선으로 탄원하는 평양시청년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전선탄원궐기대회

전선으로 탄원하는 함흥시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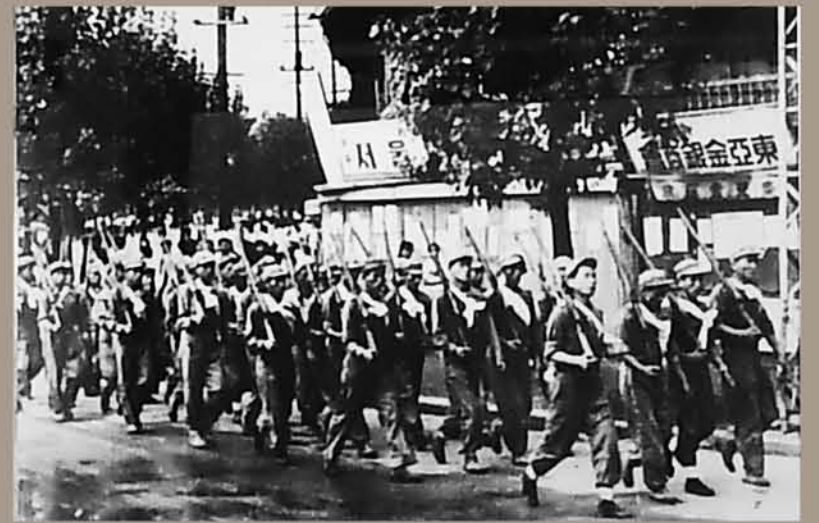
주체39(1950)년 6월 26일-8월 15일 공화국북반부에서 84만 9 000여명 전선탄원

서울시내로 돌입하는 인민군전투원들

괴뢰《중앙청》에 높이
휘날리는 공화국기발

전쟁이 개시된지 3일만에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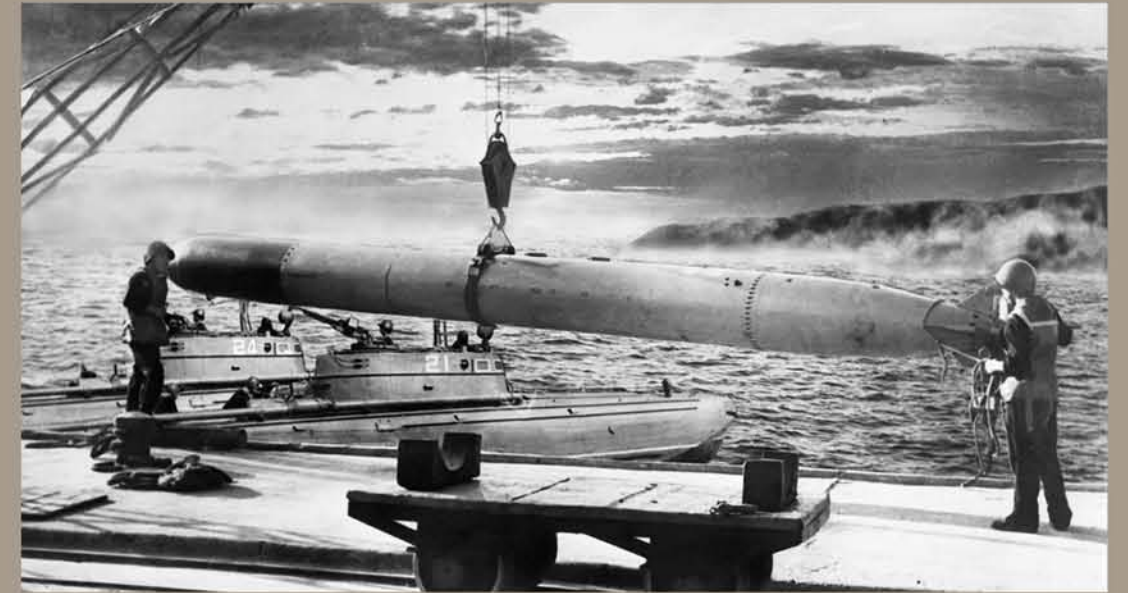
전쟁이 개시된지 3일만에 서울이 해방됨으로써 인민군대가 적의 전략적 종심으로 빨리 진출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다.

의용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서울시청년들

전선으로 나가고있는 의용군대렬

인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인민군전투원들

세계해전사의 기적-주문진해전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4척의 어뢰정으로 적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 1척을 격파하는 세계해전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해상전투임무를 토의하고있는 지휘관들

전투를 앞두고 어뢰를 싣고있는 해병들

미제침략군 중순양함
《볼티모》호

《불퇴의 선》 돌파-금강도하전투

미제가 《불퇴의 선》, 《최종방어선》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금강방어선은 인민군대의 맹렬한 공격에 의하여 2일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말았다.

금강을 도하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험산준령을 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대전을 향해 진격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대전해방작전

조선인민군 용사들은 적들이 《림시수도》로 정하고 막대한 유생력량과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집중시켜놓은 대전을 완전히 포위하고 소부대들에 의한 선제타격과 기습전, 여러 방면에서의 강력한 동시타격으로 적들을 소멸하였다.

《상승사단》으로 불리우던 미24보병사단은 대전에서 완전히 괴멸되였으며 전투장에서 탈출하여 방랑하던 사단장 띤은 인민군병사에게 포로되였다.

인민군병사에게 포로된
미24보병사단장 띤

해방된 공화국남반부에서 인민정권의 수립과 당 및 근로단체 복구, 제반 민주개혁 실시

조선민주청년동맹 춘천시위원회 결성대회

로동법령을 지지하는 전라북도인민들

땅을 분여받은 기쁨 안고 시위에 떨쳐나선 공화국남반부농민들

해방지역에 수립된 인민위원회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반공격에로

주체39(1950)년 9월중순 전쟁형세는 급변하였다.
미제는 태평양방면에 있는 륙해공군과 지중해함대의 일부, 미국본토의 지상군과 추종국가군대까지 조선전선에 들이밀어 락동강계선에서 《총공세》를 시도하는 한편 대병력을 동원하여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적들은 아군의 전선과 후방을 차단하고 전선의 인민군 주력부대들을 포위소멸하며 단시일내에 전조선을 강점하려고 획책하였다.
적들의 기도와 약점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일시적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해나갈수 있는 전략적방침[조국해방전쟁 제2계단 (1950. 9. 16-10. 24.)]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9(1950)년 10월 11일 전체 조선인민에게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자》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여 전체 인민과 인민군대를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전략적이며 일시적인 후퇴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인민군부대들이 확대강화되여 새로운 반공격준비가 갖추어졌다.
이와 함께 적후에 정규군의 련합부대들로 강력한 제2전선이 형성되고 인민유격대들이 조직되여 적후투쟁을 벌림으로써 전국의 근본적인 전환이 더욱 앞당겨지게 되였다.
주체39(1950)년 10월하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력한 반공격전을 진행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조국해방전쟁 제3계단(1950. 10. 25-1951. 6. 10.)]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당, 국가 및 군대안에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고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등 전쟁승리를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쟁 제3계단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5차례의 큰 규모의 작전들이 련속적으로 진행되였다.
인민군부대들과 제2전선부대들의 긴밀한 협동동작밑에 청천강이북지역에서의 강력한 반타격전, 청천강, 장진호반, 청진지역들에서의 적집단포위소멸작전, 린제-차평리일대에서와 현리지역에서의 적포위소멸작전, 제2전선부대들과 인민유격대 및 청년근위대들과 소년근위대들에 의한 적배후교란작전 등이 진행되여 적들에게 일시적으로강점되였던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해방하고 적들을 38°선이남으로 몰아냈다.

전국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구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년 11월

새로운 반공격작전을 지휘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년 1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9(1950)년 12월

주체39(1950)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 《현정세와 당면과업》과 결론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전쟁과정에 일어난 군사정치정세의 커다란 변화와 전쟁의 매 단계마다 조선로동당이 취한 대책 그리고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과 인민군대가 벌린 영웅적투쟁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당앞에 나선 당면한 정치, 경제, 군사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론에서 승리에 자만도취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견결히 투쟁할 각오를 가져야 하며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줄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반공격전에서 쟁취한 승리를 공고히 하며 적들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할데 대한 문제,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며 파괴된 경제를 복구할데 대한 문제 등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는 당, 국가 및 군대안에 혁명적규률을 강화하고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전선과 후방을 강화하여 전쟁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새로운 작전임무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2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락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4월

전선을 찾으시여 인민군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4월

전선을 찾으시여 해안방어를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4월

공화국영웅 및 모범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6월

공화국영웅 강호영의 정치부중대장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6월

인민군전투원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6월

전쟁의 일시적난국 타개,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

조선인민군 용사들은 락동강계선과 인천-서울지구에서 력량상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가렬한 전투를 벌렸다.

조선인민군 1개 해안포중대와 1개 보병중대 용사들은 적의 5만여명의 병력과 약 1 000대의 비행기, 300여척의 함선과 맞서 인천의 관문인 월미도를 3일간이나 지켜냄으로써 적의 인천상륙기도를 저지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서울지역의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적의 공격을 14일동안이나 저지시킴으로써 서울을 3~5일이내에 《속전속결》로 점령하고 아군의 전선과 후방의 련계를 끊으며 락동강전선에 진출한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포위섬멸하려던 적의 기도를 여지없이 파탄시켰다.

월미도에 맹폭격과 함포사격을 가하는 미제침략군

맹렬한 반돌격으로 인천지역에 침입한 적들을 소멸하는 인민군전투원들

대련합부대에 의한 적후제2전선의 형성

제2전선부대 전투원들을 도와 탄약과 식량을 나르고있는 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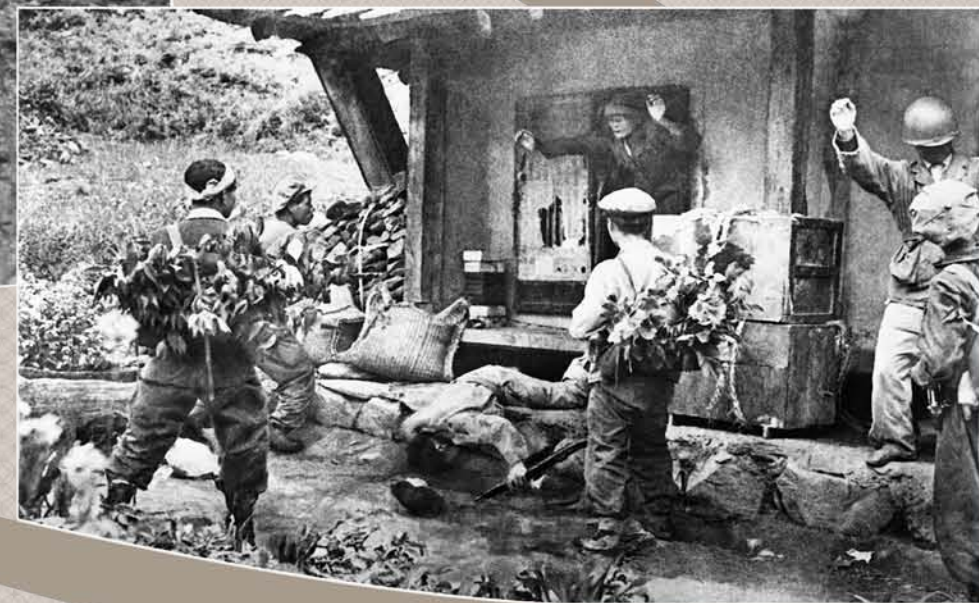
적후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인민군전투원들

적후투쟁에서 위훈을 세울 신심에 넘쳐있는 인민군전투원들

인민유격대들의 적후투쟁

적강점지역에서 유격투쟁을 벌리고
있는 평강인민유격대원들

인민군대와 협동작전을 토의하고
있는 곡산인민유격대원들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고있는
단천인민유격대원들

적의 지휘부를 습격하고있는
구월산인민유격대원들

고향마을을 용감히 지켜싸운 화천소년근위대원들

적들을 족칠 방도를 토의하고있는 조옥희소년근위대원들

새로운 전투임무를 토의하고있는 서평양청년근위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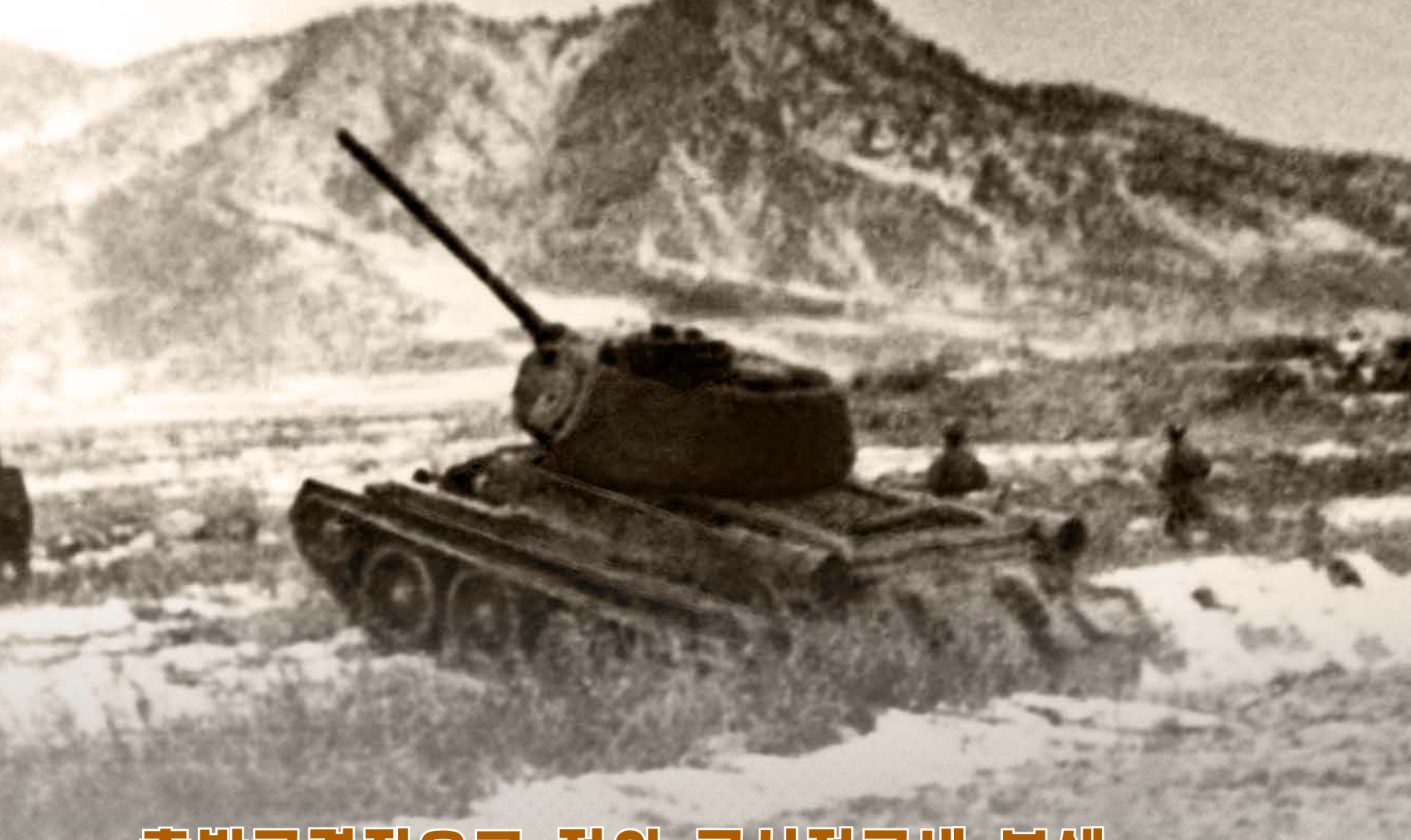
청년근위대들과 소년근위대들의 적후투쟁

정찰임무를 수행하고있는 안주탄광소년근위대원들

새로운 반공격력량 준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의 북부내륙지대를 반공격기지로 선정하시고 적의 포위를 뚫고나온 조선인민군 주력부대들을 골간으로 하면서 새로 조직되는 예비부대들을 편입시켜 여러개의 군단들을 편성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공군, 해군부대들과 각 병종부대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였으며 인민군군관양성사업과 기술병종지휘관양성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강력한 반공격력량이 빠른 시일안에 준비되게 되였다.

총반공격전으로 적의 군사적공세 분쇄

주체39(1950)년 10월하순에 이르러 조선인민군의 반공격준비가 갖추어짐에 따라 전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인민군부대들은 전국의 근본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군사작전들을 진행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은 전선서부인 청천강이북에서 강력한 반타격전을 벌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전선동부에서는 완강한 방어로 적의 공격을 저지시켜 감은절전으로 전조선을 강점하려던 적들의 《감은절공세》를 파탄시켰다.

전전선에서 총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청천강과 장진호반일대에서 적집단을 포위섬멸한것을 비롯하여 제2전선련합부대들과의 긴밀한 배합작전밑에 성과를 확대함으로써 적들의 새로운 《크리스마스총공세》를 짓부시고 적의 일시적강점밑에 있던 공화국 북반부의 전지역을 해방하였다.

장진호반전투에서 포로된 침략자들

37° 선이남으로 적 구축

서울시내로 돌입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서울시에서 포로된 미제침략군

시가전을 벌리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적의 방어를 돌파하는 인민군전투원들

원산시내로 돌입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림진강을 도하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공격과 방어의 배합으로 적의 군사적공세들을 분쇄

적들을 소멸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린제-차평리전투에서 적을 소멸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고사리계선에서 적들에게 명중탄을 안기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승리한 래일을 위하여

조국해방전쟁의 기적과 사변들은 전투에서만 창조되지 않았다.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원대한 구상도 전화의 포화속에서 펼쳐지고 그 설계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9(1950)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구상을 내놓으시였다.

누구도 전쟁의 결말을 알수 없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은 반드시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나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며 전쟁이 끝나면 인차 인민경제복구건설에 착수할수 있도록 그 준비사업을 추진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가렬처절한 전쟁이 한창이던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해 수많은 전투원들이 대학으로 소환되고 전선으로 탄원했던 류학생들도 해당 나라에 되돌아가 류학을 계속하였다.

전쟁의 총포성을 짓누르며 모든 학교들에서는 아이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졌다.

주체40(1951)년부터 현대적인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가 작성되게 되였으며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수도의 복구건설전망을 보여주는 전람회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뿐만아니라 과학자대회가 소집되고 과학원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인 공장대학이 창립되였다.

또한 나라의 자연부원을 조사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였으며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유리한 조건도 마련되였다.

전화의 포화속에서 승리한 래일이 설계되는 격동적인 현실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고무하고 그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었다.

미제는 조선을 페허로 만들면서 조선인민을 굴복시키려고 하였지만 전쟁승리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를 락관하는 인민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다.

전화의 포화속에서 설계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

유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2월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10월

해군류학생문건을 비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1(1952)년 4월

농촌마을을 락원으로 꾸리실 구상을
펼쳐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1(1952)년 5월

전선에서 소환되여 모교로 돌아온 김책공업대학(당시) 학생들

학습에 열중하고있는 대학생들

영예군인제1공업학교(당시) 학생들

신의주교원대학 졸업생들

전시환경에서도 중단없이
공부하는 학생들

과학자대회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들

비날론연구사업을 하고있는 과학자들

서해안간석지측량작업을 하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조사대원들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며 건설되고있는 국영5호종합농장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전쟁 1년동안에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만회할수 없는 군사정치적참패를 당하고 1951년 6월에 이르러 전쟁의 불을 질렀던 38°선계선에 주저앉고말았다.

그러나 미제는 침략적야욕을 버리지 않고 병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지상전선에서의 돌파와 동서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시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려 이미 차지한 계선을 완강히 유지하고 적을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는 한편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고 후방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조국해방전쟁 제4계단(1951. 6. 11-1953. 7. 27.)]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는 주체40(1951)년 6월중순부터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으로 넘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전선에서 방어진지들을 갱도화하도록 하시였으며 습격조활동, 저격수조활동, 땅크사냥군조운동,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등 독창적인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도록 하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시였으며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사업이 전인민적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211고지방어전투, 정형고지전투, 351고지공격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작전과 전투들이 승리적으로 진행되여 미제침략자들이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감행한 《하기 및 추기공세》, 《신공세》 등 온갖 모험적인 《공세》와 침략기도들은 짓부셔지고 적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갱도작업장에서 군인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10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11월

주체40(1951)년 1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와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라는 결론에서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며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는 주체적인 대중적당건설로선에 기초하여 당대렬을 급속히 확대강화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여 전쟁의 승리를 위한 주체적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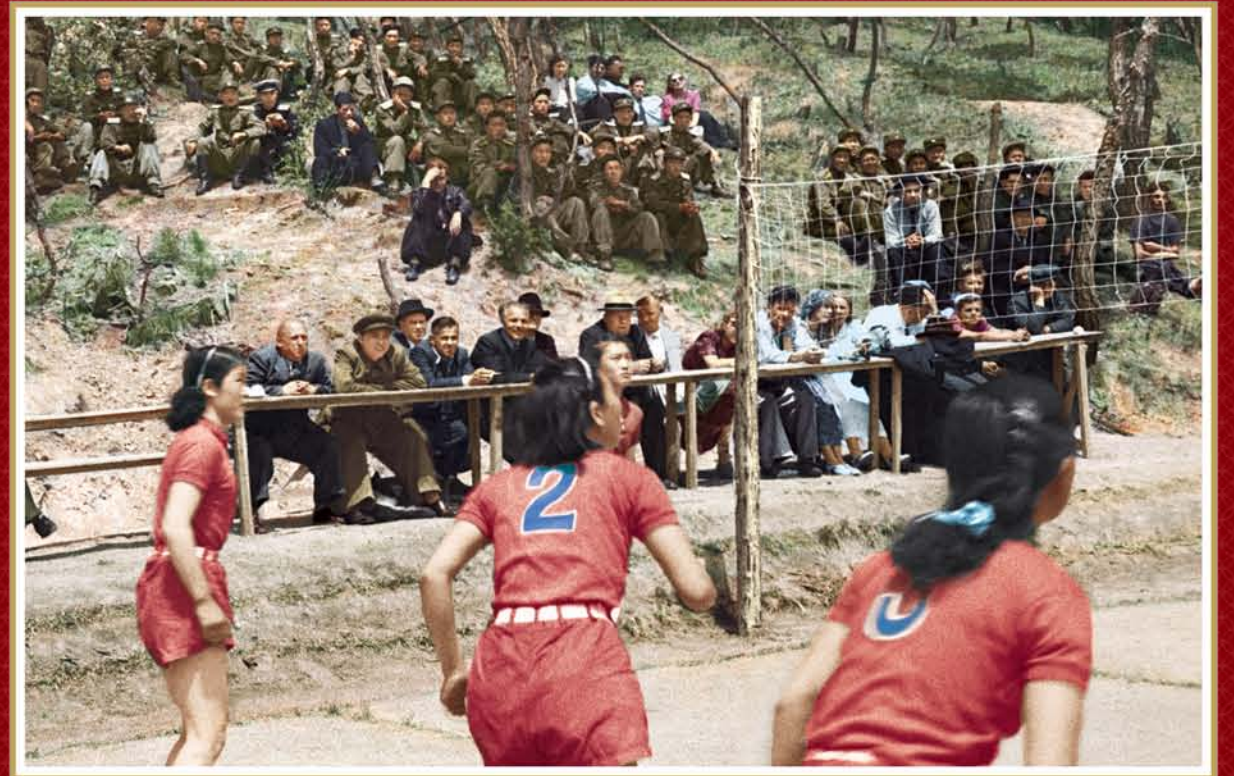
또한 당건설과 당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해군무력강화를 위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0(1951)년 12월

최고사령부 집무실에서 사업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1(1952)년 5월

전투영웅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1(1952)년 1월

정찰구분대 군인들에게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1(1952)년 6월

강건군관학교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1(1952)년 6월

배구경기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1(1952)년 5월

전투훈련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1(1952)년 6월

새로 장비한 비행기를 료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41(1952)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主체41(195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주체41(195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당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이후 거둔 성과를 총화하시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현 군사정세와 당, 정권기관 및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主체41(1952)년 12월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대오로

정치상학을 진행하고있는 군관학교학생들

군관강습소 제2기 개강식

작전전술강의를 받고있는 고급군관학교학생들

군사규정대로 일과를 집행하고있는 특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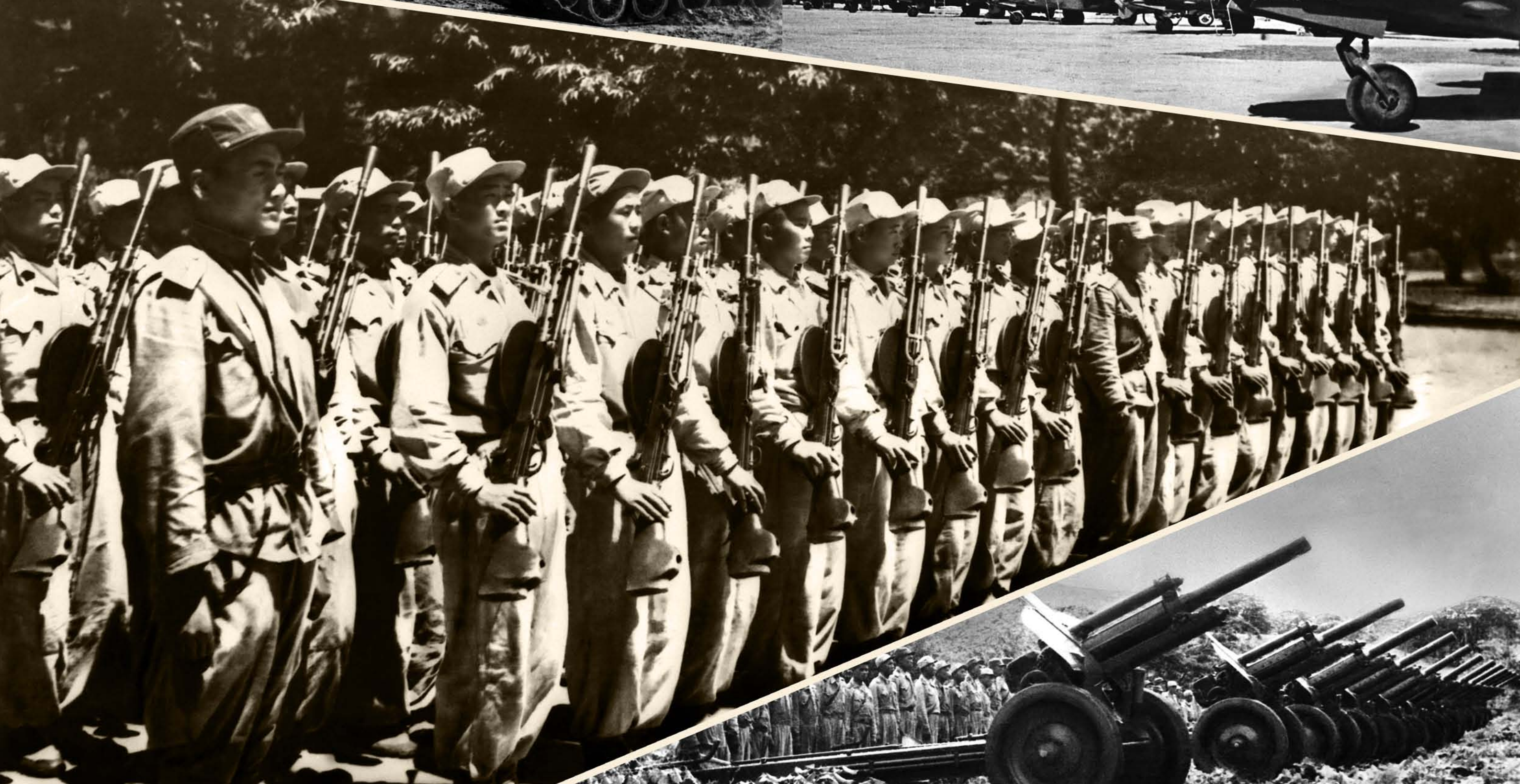
특무장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강습회

지휘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군관들

전술훈련을 진행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포사격술을 련마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함상포의 사격원리를 배우고있는 해군군관학교 학생들

비행훈련에 참가한 공군
군관학교 학생들

전인민적인 전선원호운동, 전시생산, 전시수송

기관단총을 생산하고있는 전선작업반원들

인민군전투원들에게 탄약을 날라다주는 인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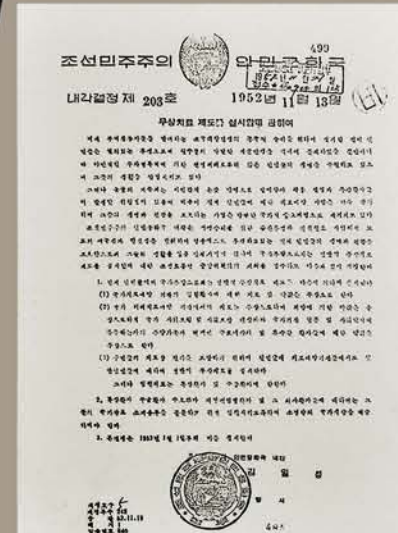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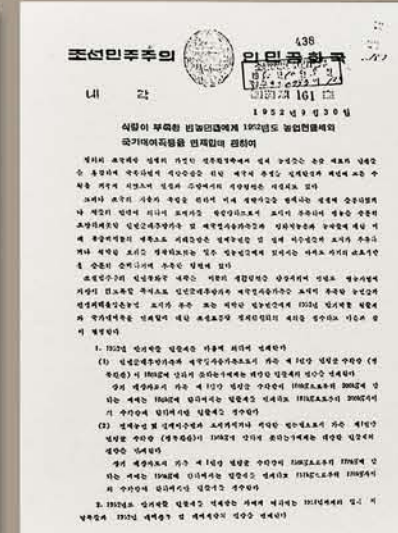
성의를 다하여 전선원호미를 마련하는 녀성농민

활발히 벌어진 녀성보잡이운동

박격포탄생산을 다그치고있는 청년들

전시수송을 보장하고있는 수송일군들

전시인민생활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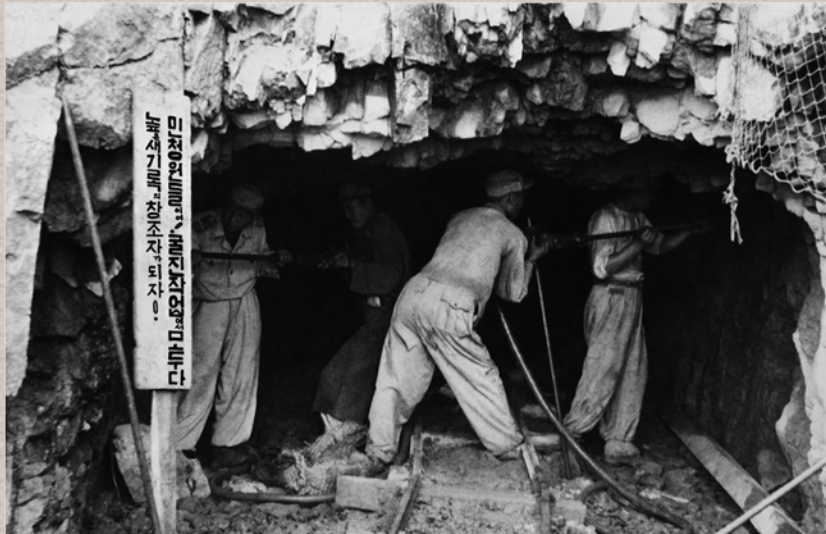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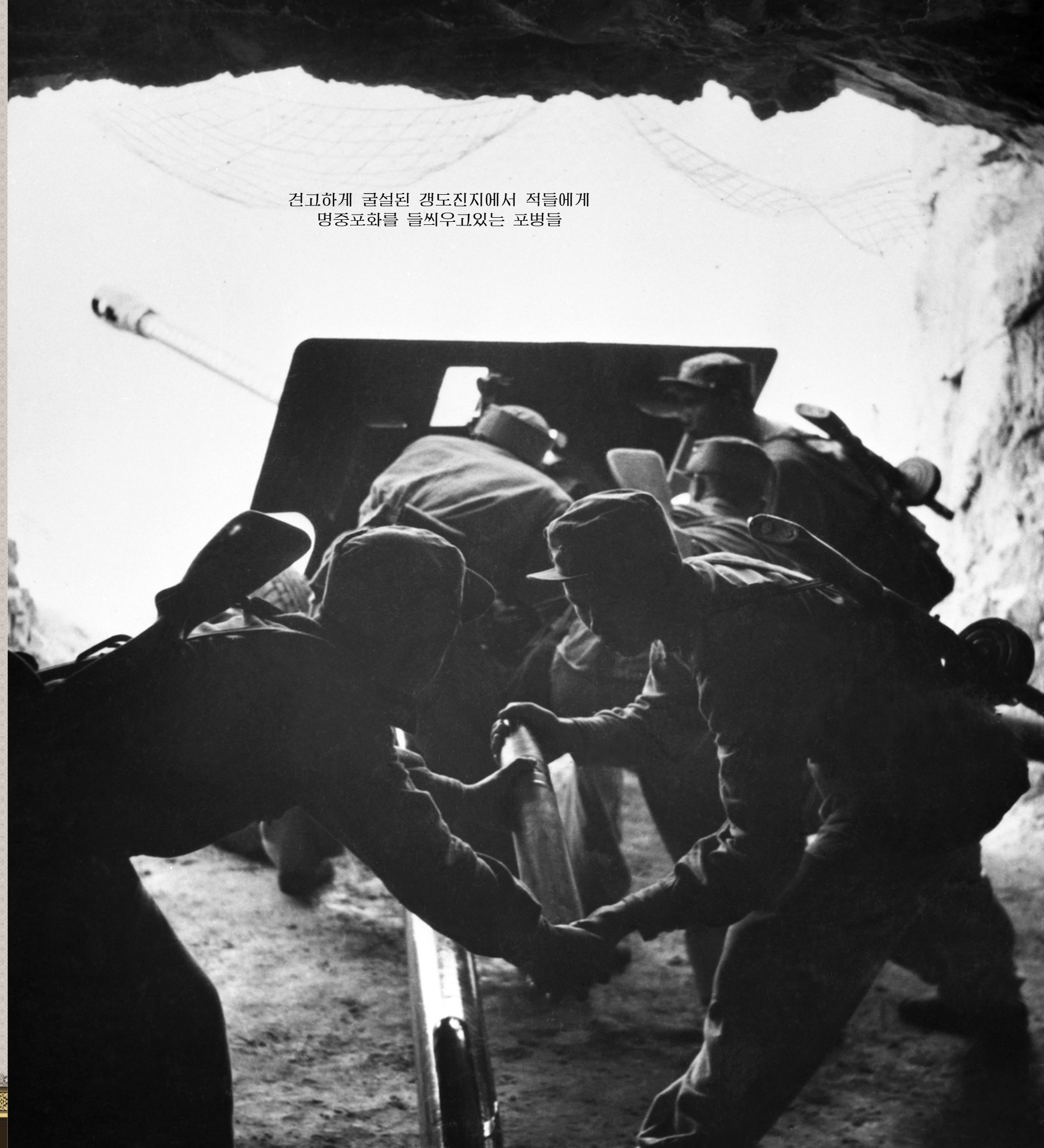
무상치료혜택속에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농업현물세와 국가대여곡을 면제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국가로부터 부림소를 받고 기쁨에 넘쳐있는 농민들

국가의 관심속에 무럭무럭 자라고있는 육아원 원아들

국가로부터 대여미를 받고있는 농민들

주체전법의 창조와 활용

갱도전법

견고하게 굴설된 갱도진지에서 적들에게
명중포화를 들씌우고있는 포병들

습격전으로 적들을 소탕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적진속으로 들어가는 습격조원들

적의 화점을 불의에 기습하고있는 습격조원들

습격조활동

섬에 도사리고있는 적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상륙하고있는 습격조원들

적비행기를 쏴떨군 경험을 나누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달구지바퀴로 중기관총사격틀을 만들어 적기를 쏴떨구고있는 인민군전투원

녀성비행기사냥군조원들

적기를 사격하고있는 고사포병들

적기를 쏴떨구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땅크사냥군조원강습에 참가한 인민군전투원들

적들의 땅크집결처를 습격하고있는 땅크사냥군조원들

땅크사냥군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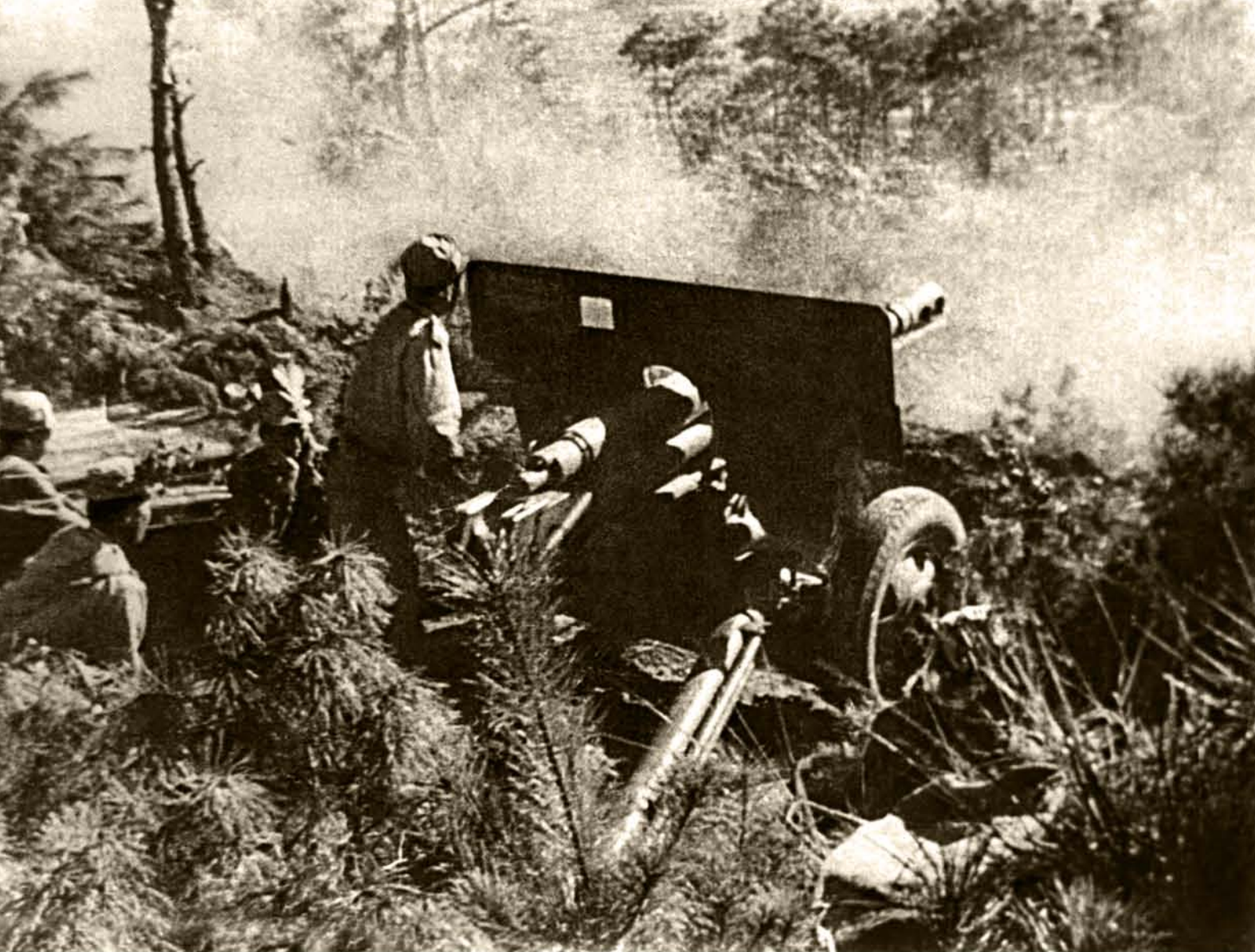
적땅크기동로에 반땅크지뢰를 매설하고있는 땅크사냥군조원들

저격수조활동

저격수강습을 받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적을 단방에 쏘아잡은 경험을 나누고있는 저격수들

적에게 명중탄을 안기는 저격수

총탄 한발에 적병 한놈씩 소멸할것을
호소하고있는 저격수

독립중기조와 이동포병중대(박격포병소대)의 활동

적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우고있는 독립중기조원들

기동하고있는 고사포병들

예비화력진지로 이동하고있는 박격포병들

적의 《하기 및 추기공세》를 격파한 1211고지방어전투

전선동부로 기동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화선공개당총회에서 1211고지를 사수할 결의를 다지는 인민군전투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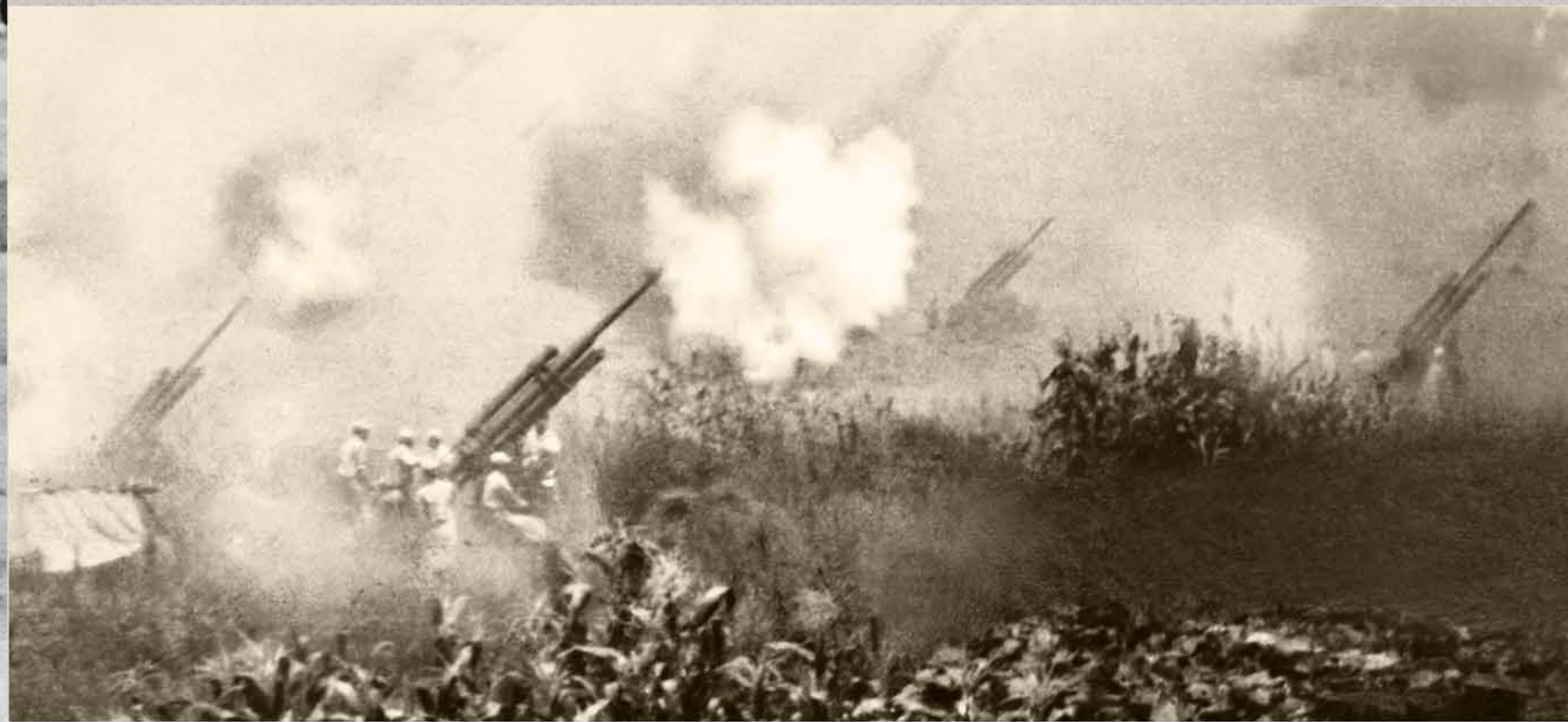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에 서명하는 1211고지방위자들

적들을 소멸하고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는 1211고지방위자들

전투조법을 토론하고있는 비행사들

전투임무를 확정하는 비행사들

적의 《공중우세》 분쇄

조선인민군 비행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고사포병들의 대공화력에 의하여 전선과 후방의 련계를 차단하려는 적들의 《초토화작전》, 《교살작전》은 파탄되였다.

적의 《신공세》기도 분쇄

미제는 《신공세》를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철원서쪽의 정형고지에 대한 《모범전투》를 준비하고 이곳에 추종국가의 기자들과 참관단성원들까지 끌어들였다.

하지만 《모범전투》는 강력한 포화력과 갱도에 의거한 인민군전투원들의 섬멸적타격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나고말았다.

정형고지전투는 미제의 《신공세》기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적의 《신공세》기도를 짓부실 결의를 다지는 인민군전투원들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지켜낼 결의를 담은 맹세문에 서명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적들의 련속적인 공격을 물리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하루밤사이에 정형고지로 신속히 기동하여 적들에게 집중적인 포화력을 안기는 포병들

전쟁의 승리를 앞당긴 강력한 타격전

조선인민군은 주체42(1953)년 5월중순부터 7월하순까지의 사이에 세차례의 강력한 타격전을 벌려 정전담판에서 《영예로운 정전》을 꿈꾸던 미제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였다.

적들을 공격하고있는 인민군전투원들

맹세문에 서명하는 인민군전투원들

공격전투를 포화력으로 지원하고있는 포병들

적의 철조망차단물을 자르고 통로를 내고있는 공병들

적화점을 까부시고있는 포병들

위대한 승리의 7.27

주체42(1953)년 7월 27일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여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승리로 끝났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투철한 조국수호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쟁취한 력사적승리였다.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공화국2중영웅을 비롯하여 600여명의 영웅들이 배출되였으며 14개의 인민군련합부대, 부대들이 근위칭호를 수여받았다.

반면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강대성》의 신화는 산산이 깨여졌다.

미제가 3일만에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조선전쟁은 3년이나 진행되였으며 거듭되는 패전과 함께 적들의 군사기술적우세는 물거품으로 되였다.

미제는 조선전선에 200여만의 대병력과 최신장비들을 동원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거의 2. 3배에 달하는 인적 및 물적손실을 당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인민은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인민으로 되였다.

승리의 7. 27, 조선의 수도 평양의 밤하늘가에는 전승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과 후방을 현지지도하신 로정도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7월

정전담판의 승리를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1(1952)년 2월

정전협정문건을 최종비준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7월

Negotiating with the Russians

In May, 1952, I was appointed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representing seventeen countries, fighting Communist aggression in Korea. Fifteen months later I signed a truce that suspended and—I devoutly hope—ended the fighting on that unhappy peninsula. For me it also marked the end of forty years of military service. It capped my career, but it was a cap without a feather in it. In carrying out the instructions of my government, I gained the unenviable distinction of being the first United States Army commander in history to sign an armistice without victory.

I suffered a sense of frustration that was shared, I imagine, by my two predecessors, Generals Douglas MacArthur and Matthew Ridgway. I was thankful the bloodshed had stopped, but like millions of other Americans I more than suspected that it all came under the heading of unfinished business.

Shortly after the truce was signed in July, 1953, I made a quick trip to the United States to attend my son's wedding and then to confer with the President and the Pentagon before announcing my retirement. I was shocked to discover at home widespread misconceptions regarding the conduct of the Korean War and the way it ended. I believe that now I can and should set the record straight as I saw it.

When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came into office in January, 1953, it appeared to me there were three courses of action open to it in Korea. It could "hold the line," continuing the stalemate that had characterized most of the thirty-one-months-old war. It could seek a decisive military victory. It could attempt to negotiate an armistice on terms it deemed honorable.

1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였다.》

당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정전협정조인식

《급속히 종결된 전쟁이라는 말을 패배로써 급속히 종결된 전쟁이라고 고쳐야 한다.》
전 미국대통령 트루맨
트루맨
마샬
브랫들리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였다.》
전 미국무장관 마샬
《조선전쟁은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이였다.》
전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랫들리

조국해방전쟁 종합전과

적살상 및 포로 156만 7 128명
- 미제침략군 40만 5 498명
- 괴뢰군 113만 965명
- 추종국가군대 3만 665명

전투기술기재
- 비행기
  - 로획 11대, 격추 5 729대
  - 격상 6 484대
- 땅크
  - 로획 374대, 격파 2 690대
- 장갑차
  - 로획 146대, 격파 45대
- 자동차
  - 로획 9 239대, 격파 4 111대

함선
- 격침 164척, 격파 93척

선박
- 로획 12척, 격침 163척, 격파 132척

각종 포
- 로획 6 321문, 격파 1 374문

각종 저격무기 로획 92만 5 152정

화염방사기 로획 117정

각종 통신기재 로획 5 788대

각종 포탄 로획 48만 9 260발

각종 탄환 로획 2 124만 5 071발

각종 수류탄 로획 22만 4 123개

각종 지뢰 로획 1만 4 449개

각종 기중기 파괴 5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시위행진에 참가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시위행진에 참가한 예술인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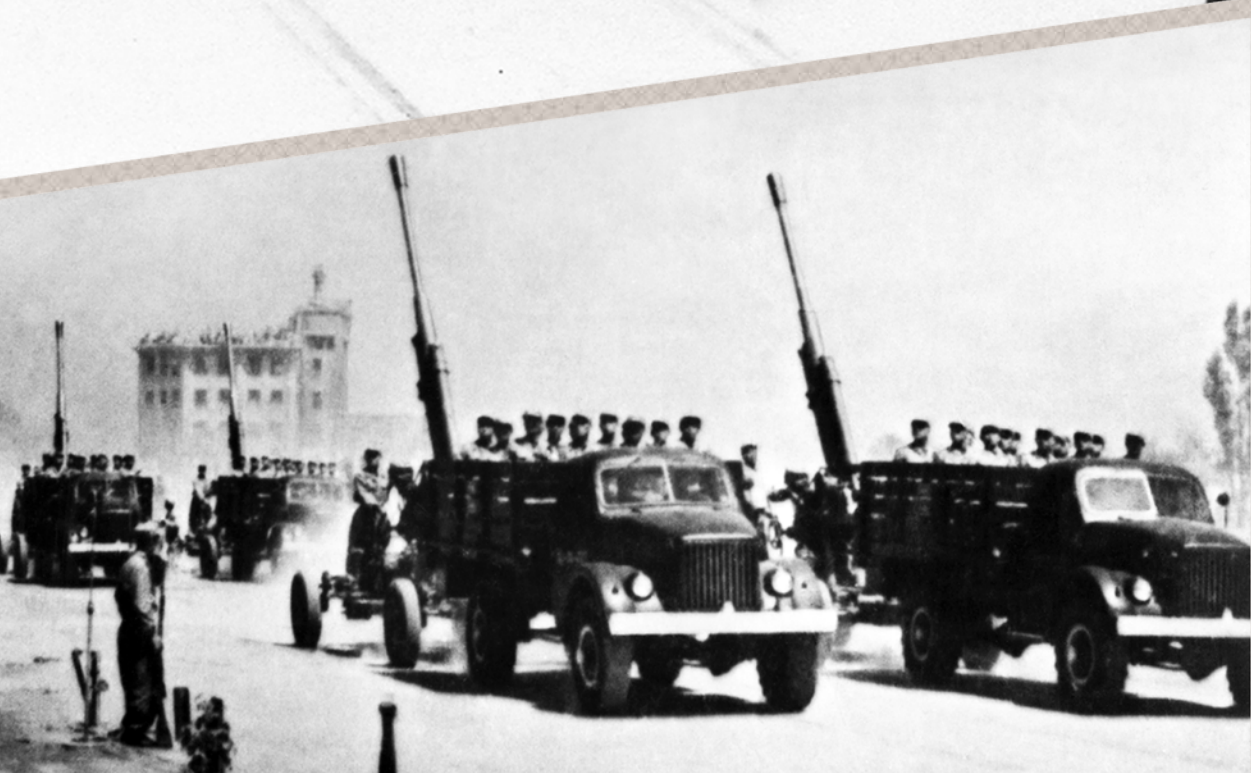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2(1953)년 8월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경축하는 열병식

모든것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에로!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열병대오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2중영웅을 비롯하여 600여명의 영웅들이 배출되고 14개의 인민군 련합부대, 부대들이 근위칭호를 수여받았다.

613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은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될것이다
위대한 년대에 영광을 드린다
1950-1953

전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령장

편집: 김국철
글: 림옥
낸 곳: 외국문출판사
발 행: 주체112(2023)년 7월
ㄱ-23088007279